

【학술답사기】

## ‘제국들’이 머무른 곳, 만주로 향하다

이 경 림\*

### 1. 중국의 얼굴들

지난 여름 만주를 다녀온 것이 마치 전생의 일인 것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겨울이다. 냉기가 스미는 벽 앞에서 손을 붙면서 답사기를 쓰기 위해 만주에서 찍어 온 사진 폴더를 열었는데, 함께 답사를 떠났던 선생님들이 반팔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차창 밖으로 부서지던 여름의 열기와 빛의 감각이 기억나자, 굴비 위듯 줄줄이 답사의 추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만주로 떠나기 전인 5월, 나는 친구와 함께 상하이에 놀러간 것을 계기로 중국에 처음 발을 들였다.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이름이 걸맞도록 상하이에는 지하철이나 편의시설 등이 잘 설비되어 있었고, 고층빌딩과 질서정연한 주택가, 준비하게 늘어선 브랜드 상점들이 현대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예원처럼 고풍스러운 명나라 시대의 정원이 밤에 불을 밝히고, 개항 후 설치되었던 조계지에 조성된 유럽풍 거리가 그대로 남아있어 격랑처럼 지나간 역사와 시대가 도시에 새긴 흔적들이 분명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만주답사는 내게 상하이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중국의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중국에 자

---

\* 국민대학교 시간강사

주 다녀오셨던 선생님들의 대화 속에 언뜻언뜻 비치던 그 ‘진짜’ 중국, 중국의 ‘맨얼굴’이라 할 만한 것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다. 특히 말로 나 듣고 머릿속이나 존재했던 ‘대륙’을 육체에 감각으로 새겨준 답사였다는 점에서 잊지 못할 것이다.

2014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나는 하계 만주학회 답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서재길 선생님께서 권해주신 덕분에 같은 대학원 친구인 문석이, 지은 언니, 은지와 나는 이번 답사팀의 막내들로 합류할 수 있었다. 19명에 달하는 거대 규모의 답사팀이라 다양한 전공에서 활약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박성모 사장님처럼 학계 바깥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뵙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신선한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답사기를 쓰려고 앉으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답사 내내 우리를 보살펴주신 김창호 선생님, 김재용 선생님, 서재길 선생님 등 인솔의 중책을 맡으셨던 선생님들의 얼굴이다. 이번 만주 답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실 선생님들의 노고였다고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국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따라나선 철없는 나 같은 막내들로 인해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무진 고생을 하셨다. 문자 그대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여 주신 선생님들의 자상한 보살핌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말도 안 통하는 이역만 리에서 서러워 울다 지쳤을 것이다. 이번 지면을 빌려 또 감사를 표해도 여전히 모자라다.

## 2. 수감자와 희생자의 도시, 다롄

이번 답사는 다롄-선양-창춘-하얼빈-다롄으로 만주철도를 따라 이어지며 내륙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코스로 짜여 중국의 다양한 얼굴을 두루 경험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다롄공항에 내린 이후 2시경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첫 번째 답사지인 휘순일야감옥

구지박물관에 도착했을 때에도 날씨가 약간 흐려서, 적벽돌로 쌓은 3~4층 높이의 거대한 감옥이 더욱 을씨년스럽게 보였다. 철조망을 둘러친 높은 담과 감시소가 더욱 위압적으로 보이는 곳이었다.



[사진 1] 휘순일야감옥구지 전경

휘순감옥은 1902년 러시아가 처음 건축했고,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휘순을 점령하고 나서 1907년에 증축했다고 한다. 2천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로 부지도 상당히 넓었고 수감실, 사형실, 공장, 의무소 등 기능에 따라 구역이 나뉘어 있었다. 감옥 내에 붙은 『관동청요람』의 통계에 의하면 1930년까지 휘순감옥에 갇힌 사람은 약 29만 명, 1940년까지는 약 44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병감(病監) 통계에서 소화기관병과 호흡기관병 환자가 유독 많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사진 2] 휘순감옥 탈의실

감옥 건물 입구를 들어서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이 탈의실이었다. 수감자들이 사복을 벗고 죄수복으로 환복하는 곳으로 투박한 옷걸이와 옷을 복원하여 두었다. 휘순감옥은 안중근과 신채호, 이회영이 구금되었던 것으로도 유명하고, 감옥 안을 둘러보면 각종 고문 기구가 즐비하게 늘어선 고문실이나 교수형을 집행하던 사형실, 사형된 시체가 빠진 통을 통째로 들고나가 파묻은 무덤 등 죽음과 공포를 상기시키는 장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안중근 의사가 생활했던 독방은 매우 공들여 복원되어 있고, 그 옆에는 커다랗게 안중근 의사의 수감에 관한 기록을 적은 금색 패널도 붙여 있어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바닥이 덜컹 열리는 마룻바닥과 천장으로부터 늘어진 굵은 밧줄 올라기, 그리고 목을 맨 시체를 바로 떨어뜨려 넣을 수 있는 나무통이 바닥에 덩그렇게 놓인 사형실도 인상적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휘순감옥을 떠올리면 탈의실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앞으로 끌려

들어가 어떤 날들을 보내게 될지 한 치도 알 수 없는 감옥과 바깥세상의 문턱에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깎이며, 44만 5천여 명에 달했다던 수감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전체적으로 색채가 매우 적은 감방은 흰 회벽과 나무로 짜 맞춘 회색 문, 닳아서 반들반들한 마룻바닥, 나무로 만든 집기 등으로 단출하게 꾸며져 있었고, 판옵티콘을 금세 떠올리게 하는 감시대가 방사형으로 뻗은 복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다. 간수들이 복도를 다니면서도 아래층을 감시할 수 있도록 바닥에 창살을 댄 구멍이 뚫려 있기도 했다. 또한 수감자들의 다양한 국적을 증명하듯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로 감옥 규칙이 붙어 있었다. 적벽돌로 쌓은 건물과 담장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것 없이 뽕 풀린 풀밭이 있어서 너머의 건물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건물이나 부지에 전체적으로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곳은 거의 아무 데도 없었다. 수감자들은 살아서 감옥 문을 나서지 못했다면 통에 들어간 시체가 되어 땅에 묻혔을 때라야 비로소 그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진 3] 구 관동군법원

뤼순감옥을 나와 버스를 타고 이동한 곳은 구(舊) 관동군법원이었다. 한가해 보이는 주택가를 지나자 흰색 서양식 건물이 등장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입장을 하지는 못하고 바깥에서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 관동군의 위엄을 증거하듯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법원은 위압적으로 버티고 서 있었다.

관동군법원을 뒤로 하고 우리가 찾은 곳은 203고지였다. 이 고지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여러 선생님들께 러일전쟁의 전개에 대하여 귀동냥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203고지는 뤼순에 고립되어 봉쇄당한 러시아군이 탈출을 꿈꾸며 사활을 걸고 사수했고, 일본군이 6개월에 걸쳐 집요하게 공격하여 1만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격전지라 한다. 그 높이가 203미터이기 때문에 203고지라고 불리는데, 백여 년 전 이 야트막한 산에는 그야말로 시체가 널리고 피비린내와 화약 연기가 진동했을 터였다. 비좁고 딱딱한 좌석이 특징적인 미니버스를 타고 올라선 203고지에는 돌로 쌓은 참호와 대포가 바다를 향해 전시되어 있었다. 고개를 돌리면 뤼순 시내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곳이어서 이곳이 왜 그토록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취하려 했던 요충지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고지의 정중앙에는 탄환 모양의 거대한 비(碑)가 돌로 쌓은 축대 위에 서 있었다. 이 비는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과 러시아군이 사용했던 탄환과 무기를 모아서 녹여 만든 것이라 한다. 중국어로 203을 음차하여 ‘얼링산’이라 부른다는 설이 있고, 한편 당시 전투를 지휘했던 일본 육군대장 노기 마레스



[사진 4] 얼링산 위령비

케가 전쟁이 끝나고 이곳을 중국 현지에서 부르는 이름을 따라 ‘얼링산(爾靈山)’이라 명명했다고도 하는데, 이 비를 축조한 것도 바로 노기 마레스케였다. 그는 러일전쟁에서 장남과 차남을 모두 잃었는데, 차남인 노기 야스스케가 사망한 곳이 바로 이 203고지였다. 일본군 3군 사령관으로서 뤼순 공방전을 진행하며 휘하 병력 13만 명 중 5만 9천여 명을 희생시켰던 노기 대장은 퇴역 후에도 수많은 젊은이를 사지에 몰아넣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메이지 천황이 서거하자 부인과 함께 자결했다고 한다. 한때 젊은 군인들의 피가 강을 이루었을 203고지에는 이제 시원한 바람만이 불고, 과거의 무기로 만들어져 푸르게 산화한 위령비만이 외롭게 서 있었다.

다시 버스에 올라 다렌에 돌아온 우리는 다렌외대의 초청을 받아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 커다란 원탁에 푸짐하게 차려진 이름을 알 수 없는 각종 음식들은 이름을 못 외워 온 것이 통탄스러울 정도로 맛있었다. 특히 오이와 새우, 당근을 볶은 음식은 기름기 많은 다른 음식들에 비해 담백하고 산뜻했었는데, 역시 이름을 몰라 아무 데서도 시킬 수가 없어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나는 첫날부터 심한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체력이 떨어져 저녁때쯤 되자 거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마신 칭다오 순생과 설화 순생이 일시적 체력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 이곳의 맥주들은 대체로 맛이 매우 연하여 맑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었다.

첫날 우리의 숙소는 구(舊) 야마토 호텔, 다렌빈관이었다. 이미 조명을 밝힌 육중한 건물들로 둘러싸여 휘황찬란한 중산광장 바로 앞에 다렌빈관이 있었는데, 고풍스러운 흰 석조 건물이 근대의 감각을 여실히 맛보게 해주었다. 중산광장은 원형의 광장에서 방사형으로 대로가 뻗어나가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당시 세계인이 선망했던 도시 파리를 모델로 본뜬 것이라 한다. 대리석이 깔린 넓은 호텔 로비 한 켠에는 그 시대의 ‘야마토호텔’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약간 어슴푸레한 조명 아래 카펫이 깔린 복도와 계단을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처럼 유서 깊은 건물에 늙자 비로소 정신없이 지나왔던 하루가 정리되며 드디어 중국의 안에 발을 들

였다는 실감이 났다. 짐을 풀고 나서 김창호 선생님의 인솔 아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산광장 일대를 돌아보고 야경을 즐기러 나갔는데, 감기로 탈진한 나는 눈물을 머금고 감기약을 먹고 자기로 했다. 종합감기약을 챙겨 와서 다행이라고 혼자 위로하면서, 그렇게 만주 답사의 첫날은 지나갔다.



[사진 5] 다렌빈관에서 바라본 중산광장 전경

### 3. 과거의 영광과 쇠락, 선양

다음날 아침, 다렌빈관에서 조출한 조식을 먹고 선양으로 향했다. 5~6시간이 우습게 걸리는 이날 이동부터 본격적으로 대륙에 왔다는 실감이 났다. 각 도시 간의 거리가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교통상의 사정이 겹친 터라 이동 시간이 예정보다 상당히 길어졌는데,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과 너른 들판은 마적들이 활약하던 만주로 들어간다는 실감을 진하게 전해주었다. 만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광대함’이 관념이 아니라 실

체로, 감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몇 년 전 항일유적지를 답사하는 단체를 따라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하바롭스크를 방문했을 때, 유럽풍의 모던한 거리나 풍광이 전혀 없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났다. 아기자기한 유럽식 건물들에 익숙해 있던 눈에는 투박하고 큼직한 건물들 사이로 화려하여 눈에 확 띄는 모스크들이 섞인 도시가 독특한 미감(美感)을 주었는데, 이번 만주답사에서 돌아본 여러 도시들이 바로 이 러시아 도시들과 비슷한 인상을 주었다. 또 유럽에 가까운 모스크바와 달리 하바롭스크에서 바이칼 호수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은 칭기스칸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너른 들과 끝없는 숲, 강이 대부분이라 만주란 이런 곳일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직접 달려보니 만주는 상상보다도 훨씬 거칠고 광대했다. 하긴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서도 이 부근은 전부 만주횡단철도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리고 보니 무뚝뚝하면서도 호방한 사람들의 기질(氣質)도 상당히 닮은 것 같다. 풍토와 문화의 교섭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달려 도착한 선양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점심을 챙겨먹었다. 대를 잇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라오벤교자관(老邊餃子館)에서 여러 종류의 만두를 먹어보았는데, 혀를 감싸는 진한 육즙에 이동을 지친 몸과 마음이 단번에 위안 받을 수 있었다. 라오벤교자관은 명동처럼 변화한 현대식 대로 옆에 있어서, 점심을 먹고 나와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를 구경했다. 이 거리에는 유리로 단장한 현대식 건물도 눈에 띄었으나 러시아풍의 육중한 석조 건물도 많아서, 같은 중국인 상하이보다는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크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의 도시 경관을 다시금 연상시켰다.

이날은 시간이 약간 촉박했던 관계로 점심을 먹은 후 선양고궁과 중공만주성위기념관 두 곳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둘러보기로 했다. 서재길 선생님, 윤은호 선생님, 지은 언니, 은지와 나는 선양고궁으로, 다른 일행들은 중공만주성위기념관으로 향했다. 1625년에 세워진 선양고궁은 청태조 누르하치와 그의 아들 청태종이 지은 황궁이다. 베이징고궁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궁전으로, 후금 시대의 정궁이자 청나라 시대의 별궁으로 사용되



[사진 6] 선양고궁 대정전 전경

었다고 한다. 이 궁전의 건축물에는 한족, 만주족, 몽고족의 양식이 융합되어 있어, 자금성이나 베이징고궁처럼 한족 문화의 영향이 강한 곳들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가 난다고 한다.

건물에는 전반적으로 적색과 청색, 황색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동행하신 윤은호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바에 따르면 청색이 바로 후금의 상징적인 색이었다고 한다. 선명한 청색 현판에는 한자와 만주족의 문자가 금색으로 함께 새겨져 화려했던 예전의 광영을

아직도 과시하는 것 같았다. 기둥과 벽면에는 적색이, 현판에는 청색이, 유리기와는 황색이 주로 사용되는 등 색채들이 화려하게 사용되어 경복궁이나 덕수궁의 차분한 느낌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작은 건물들이 양옆으로 늘어선 광장 정면에 황제와 신하들이 정사를 논했던 대정전이 있었다. 팔각형 정자 모양의 대정전 기둥에는 금색 용이 휘감겨 있었는데, 이처럼 건물에 용을 사용하는 것은 한족 문화의 영향인 반면 천막처럼 생긴 지붕 형태는 몽고족 문화의 영향이라고 한다.

선양고궁의 동원에서 중원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에서 나는 이른바 ‘득템’을 했다. 선생님들이 책이나 도록에 관심을 보이시는 사이 예전에 열광하며 시청했던 드라마 <황제의 딸>에 등장했던 ‘낭낭(娘娘)’ 머리띠를 발견하고 말았던 것이다. <판관 포청천>과 함께 가장 흥미진진하게 봤던 대하드라마 <황제의 딸>은 당시 신인이었던 자오웨이(趙薇)를 단번에 세상에 알려준 것으로 유명하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청나라 건륭제

시대로, 제비와 자미 두 여주인공의 복식이나 장식이 매우 화려한 것이 특징적이다. 머리를 땀아 늘어 내리고 있던 제비와 자미는 궁에 들어서자 큰 꽃과 붉은 술을 단 머리장식을 하고 등장하는데, 기념품 가게에서 바로 이 머리장식을 팔고 있었던 것이다. 3천 원 정도를 주고 산 이 머리띠는 아직도 내 책장에 선양고궁을 불러내고 있다. 마침 기념품 가게 앞쪽에 지붕이 있는 회랑과 인공폭포가 있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어 동행한 여자들은 한 번씩 이 머리띠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윤은호 선생님이 만발한 꽃 앞에서 머리띠를 쓰고 찍은 사진이 1등이었다는 후문을 여기 기록으로 남겨 둔다.

유일한 남자였던 서재길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지만, 나는 냥냥이 된 듯한 기분에 머리띠를 벗지 않았다. 중원으로 가는 길에 마주친 어느 중국인 할아버지가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웃으시며 중국어로 뭐라 말씀 하셨는데, 분명 한숨 같은 것이 중간에 섞이긴 했지만 예쁘다는 말이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중원에 이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엄치없는 나 도 머리띠를 벗어둘 수밖에 없었다.



[사진 7] 봉황누각을 뒤에서 바라본 경관

고궁의 중심 건물 중 하나인 봉황누각은 높은 축대 위에 있었는데, 선양이 청나라의 수도일 때 왕이 정사를 논하고 연회를 베풀었던 장소라고 한다. 봉황누각 바로 아래로 통하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집무실인 숭정전과 황족의 생활공간인 청녕궁이 잇닿아 있다. 관광명소인 만큼 이 앞에는 사람들이 가득 몰려 사진을 찍으며 건물 안을 기웃거렸다. 고궁 내에 있는 박물관에 소장된 청나라 시대의 장식품은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게 세공되어 오랜 역사에도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금세 다리가 아파질 만큼 거대한 고궁 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겹겹이 겹쳐진 담장과 지붕 너머로 흐린 하늘을 넘겨다보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기분을 들게 했다. 구중궁궐의 담장 너머로는 저 멀리 현대식 고층빌딩들이 머리에 크레인을 이고 서 있었고, 태양은 구름에 가려 흐리게 빛나고 있었다. 화려한 영광의 시간은 지나가도 고궁은 관광객들의 플래시 앞에 고고하게 서 있고 태양은 만고불변하니 새삼 역사의 무상함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선양고궁은 과거의 광영을 당당하게 과시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쇠락한 왕조의 뒷모습과 무상한 시간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장소였다.

고궁을 구경한 후, 중공만주성위기념관을 둘러보고 온 일행과 합류하여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북한 식당 모란관으로 향했다. 모란관이 있는 거리는 엔제리너스 커피나 롯데리아처럼 국내에 흔한 프랜차이즈 점들이 들어서 있어 마치 한국에 돌아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상하이에서 들렀던 옥류관과 이곳 선양의 모란관은 분위기가 거의 비슷했다. 젊고 예쁜 접객원이 서빙을 하다가 공연시간이 되자 화려한 개량한복으로 갈아입고 즉석에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 중에 꽃다발을 건네받은 사람은 공연이 끝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하지만 관광객임을 감안해서인지 공연 중에 사진을 찍을 때에도 엄하게 제재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들은 모란관처럼 주로 젊은 여성 접객원들을 배치하여 평양냉면 등 북한 음식을 팔고, 저녁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공연 내용은 노래와

무용, 연주 등인데 단순한 관객의 눈으로 보기에다 기량이 안정적이고 무대 매너가 능숙하다. 음식도 전부 맛있는데 특히 김치가 시원하여 따로 추가하여 먹을 정도였다. 잘 먹었다, 다음에 또 오시라 같이 세계 어느 식당을 가거나 건네는 종업원과 손님 사이의 평범한 대화가 이곳에서만만큼은 괜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날 묵은 숙소는 대로 옆에 위치한 민산빈관이었다. 다렌빈관과는 상반된 느낌의 현대식 호텔로 변화한 대로에 위치해 있어서 근대의 분위기가 물씬 났던 다렌 중산광장과는 또 다른 선양의 현대적 분위기가 잘 전해졌다. 전날 밤에 나가서 거리를 걸어보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워서 짐을 풀고 바로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어보았는데, 네온사인으로 번쩍이는 거리에 꼬치 노점상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자욱하게 퍼졌던 것이 새삼 기억난다.

#### 4. 마지막 황제, 창춘(신경)

다음날 아침, 선양에서 창춘으로 이동하는 길도 만만치 않았다. 이날은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지방도를 달려 창춘으로 향했는데, 이동에 6~7시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난다. 하지만 전날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인지 긴 이동도 그리 지루하지 않았다. 챙겨온 책을 읽다가 차창 밖의 경치를 보며 대륙에서 사는 사람들의 감각을 상상해보던 사이, 김재용 선생님께서 ‘약을 팔기’ 시작하셨다. 이번 답사에서는 긴 이동 시간 동안 김창호 선생님과 김재용 선생님이 번갈아 마이크를 잡으시고 행선지에 얽힌 역사나 특이점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선생님들은 ‘약을 판다’고 표현하셨지만 정말 다른 의미에서 ‘약이 되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역시 귀동냥으로 하는 공부 가장 재미있고 오래 기억난다는 것을 새삼 깨우쳤다. 특히 이날 창춘으로 가는 길에 김재용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기억에 많이 남아서 조금 요약해보려고 한다.

고속도로 폐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된 이 길은 바로 김재용 선생님이 그간 답사를 다니실 때마다 교통이 불편하여 못 왔다던 테링(鐵嶺), 쓰핑(四平), 궁주링(公主嶺) 지방이었다. 이 지역은 조선인의 만주 이민사에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하니, 이번 답사에 작용한 신묘(神妙)였다고 할 만하다. 조선인이 만주에 들어가는 경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경성에서 신의주를 지나 안동을 거쳐 선양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 코스고, 가난을 못 이겨 이주하는 사람들은 경성에서 원산, 함흥을 거쳐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 썬허(三合), 카이산툰(開山屯)을 지나 국자가지금의 엔지)와 룡징(龍井) 등지로 향했다고 한다. 우리가 거쳐 온 선양이 만주의 중심이되 만주국의 번두리였다면, 신경은 명실상부한 만주국의 중심이다. 그래서 만주국을 건설한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롄과 신경이 중심지였지만, 조선인 이주민들에게 중심지는 신경과 룡징이었다고 한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 북동부를 점거한 관동군은 1932년 3월 1일 만주국 성립을 선언하고, 청조의 폐위된 황제 푸이를 집정으로 삼아 신경(新京)을 만주국 수도로 선포했다. 연호는 대동(大同)으로, 일본인, 한족, 조선인, 만주족, 몽고인의 다섯 개 민족의 협력을 표방하는 오족협화(五族協和)를 건국이념으로 내세웠다. 만주국 국기의 노란색 바탕이 만주족, 왼쪽 상단의 네 가지 색 중 각각 빨간색이 일본인, 파란색이 한족, 하얀색이 몽골족, 검정색이 조선인을 뜻한다고 한다.

신경은 비단 만주국 수도라는 군사적·정치적 맥락뿐만 아니라, 조선 근대문학사나 동북아시아 문화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당시 신경은 일본에서 좌절한 프로문인들이 마지막으로 가닿는 종착역 같은 곳이었는데,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유명한 『설국』의 가와바타 야스나리 역시 만주국 신경에서 체류하며 활동했다고 한다. 다만 전쟁 협력 등의 혐의로 인해 이 시기 가와바타가 썼던 글들은 지금도 가와바타 야스나리 전집에 빠져있다고 한다.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신경에서 엮은 것이 일본 문인들과 중국 문인들의 작품선집으로, 만주국 문학작품집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인의 작품은 단 한 편도 수록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신경에서 일본인들이 낸 것이 『만주낭만』이라는 잡지다. 일본 문인들은 다롄에서 『작문』이라는 잡지를 냈다고 하는데, 이 무미건조한 제목에 비하여 신경은 ‘낭만’이라는 수사와 결합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낭만’이라는 말은 만주국에 모인 좌파들이 근대를 초극한다는 의미로 썼을 수도 있고, 일본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만주국에서 이루려는 의미로 썼을 수도 있다고 한다. 과연 ‘낭만’이라는 수사에서는 이들이 만주국에서 새롭게 품었을 희망이 풍긴다. 하지만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만주에서의 활동을 비롯해 만주국에서 일본 문인들이 활동했던 사항들은 일본 학계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봉쇄되어 있는 주제라고 한다.

신경이 일본인들에게 ‘낭만’이었다면, 조선인에게는 무엇이였을까. 조선인에게 신경은 용정과는 대비되는 또 하나의 중심지로서, 『만선일보』는 당시 만주로 들어가는 조선의 지식인들이 필수적으로 거쳐 가는 창구(窓口)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신경에 머문 유명한 문인들로는 역시 염상섭, 박팔양, 최남선, 백석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에 빠져있는 사이, 버스는 마침내 과거의 신경, 창춘으로 들어섰다. 드디어 만주국의 심장부에 들어선 것이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창춘의 공기는 신선했고 따사로웠다. 그간 다롄과 선양에서 혼잡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면, 창춘은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도시가 잘 정비되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창춘은 겨울이 매우 춥고 길다고 하는데, 우리가 방문했던 8월은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었다고 한다.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우리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로 더 유명한 만주국의 황궁, 위황궁으로 향했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궁전, 위황궁은 현재 위만황궁박물관(偽滿皇宮博物院)으로 공개되고 있다. 위황궁은 1934년 만주국이 제정으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집정부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전체 면적이 매우 넓고, 잘 손질된 중국식 건축물과 서양식 건축물이 섞여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어감과는 달



[사진 8] 위황궁 궁내부 입구

리 초라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또한 서양식으로 돌을 쌓아 만든 건물이라 하더라도 근민루, 집회루, 동덕전 등의 지붕은 황색 유리기와를 얻는 등 절충적 특징을 잘 살린 건물들이 대부분이라서 상당히 새로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의 혼합을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경관을 만들어냈다는 특징은 신민대가의 팔대부를 통해서도 잘 알아볼 수 있었다.

위황궁의 궁내부가 중국식 건축이었던 것에 비해 다른 건물들은 모두 서양풍으로 지어져서 대비감이 강했고, 석조 건물에는 모두 햇빛이 잘 들도록 창문이 많이 뚫려 있어 전날 둘러보고 온 선양고궁의 묵직하고 고풍스러운 느낌 대신 경쾌하고 세련된 느낌이 풍겼다. 황제의 집무실이 위치한 근민루는 녹색 돔 모양의 지붕이 눈에 띄었는데, 내부는 창마다 드리운 벨벳 커튼과 두꺼운 카펫, 상들리에와 금박 치장 등으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다. 또 연못을 파서 중국식으로 꾸민 정원에 면한 황후의 처소에는 길고 넓은 선룸(sum room)이 딸려 있었는데,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가득하여 마치 프랑스의 어느 궁전에라도 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날씨가 참 좋아서 정원과 건물은 햇빛으로 가득했고 공기는 서늘하여 피로를 잊고 황궁 내부를 거닐 수 있었다. 마지막 황제를 둘러싸고 파란이 일었던 궁전이지만, 나 같이 무심한 관광객에게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먼저 다가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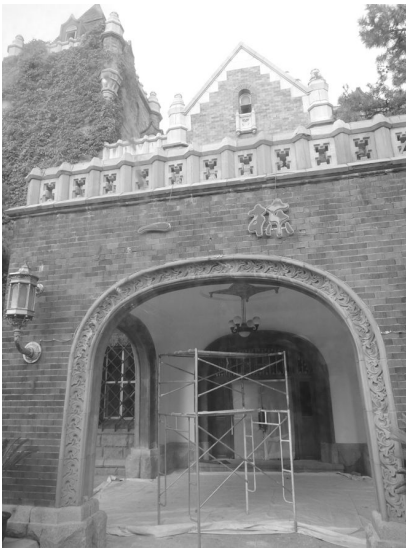


[사진 9] 위황궁 근민루 전경

황궁을 돌아나가자 역시 기념품 가게가 즐비했는데, 옛날 만주 지도 도록처럼 탐을 낼만한 서적들이 상당히 많았다. 나는 바깥에 앉아서 바람이나 쐬다가 일찌감치 후문으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미있게도 선생님들이 똑같은 책을 들고 하나둘 씩 후문을 나오시는 것이었다. 함박웃음을 지으며 ‘득템’하셨다고 나오신 선생님들의 손에 들린 똑같은 책들은 모두 가격이 달라서, 최고가는 최저가의 다섯 배 정도나 되었다. 결국 흥정의 베테랑만이 승리를 만끽하며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바람이 많기로 유명한 창춘에서는 연날리기가 성행한다고 하는데, 위황궁 후문 바깥에서도 석양을 배경 삼아 연을 날리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위황궁을 나서서 시내로 돌아가는 길에 문화광장과 신민광장을 잇는 신민대가를 지나게 되었다. 비록 내려서 찬찬히 둘러볼 시간은 없었지만, 신민대가 양옆에 늘어선 팔대부는 언뜻 보기에 매우 인상 깊은 건물들이었

다. 팔대부는 위만주국 시대의 관청 건축물을 이르는 말로 각각 외교부, 군공부, 사법부, 경제부, 홍농부, 교통부, 문교부, 관동군사령부로 쓰였던 건축물이라 한다. 백석이 바로 만주국 국무원 경제부에서 말단 관리로 근무하다가 6개월 만에 사직했다고 하는데, 그가 근무했던 경제부 건물도 버젓하게 남아 있었다. 팔대부 건물들은 대개 서양식과 중국식 건축양식을 혼합한 흥아식(興亞式)으로 지어져 있었다. 서양식 석조 건물의 몸체에 중국식 황색 기와를 얹은 외양은 바로 전 위황궁의 건물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양식이었다. 유진오는 단편 「신경」에서 주인공 철이 이 건축물들을 보고 “동양이 서양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한 나타남일까”하고 생각하는 바를 썼다. 이는 근대 동북아시아를 휩쓸었던 정치적 격동이 빚어낸 기형(奇形)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만주국에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의 ‘낭만’이 정말 실물 형태를 얻어 솟아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사진 10] 구 건국대학 건물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현재는 창춘대학인 건국대학 자리를 들러 볼 수 있었다. 건국대학은 적벽돌로 지은 서양식 건물로 일본의 동경대학과 매우 흡사한 외양을 가지고 있었다. 제국 본령과 식민지 각지에 설치되었던 제국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에 편재하는 제국’의 권력이 실체화된 것만 같았다. 건국대학은 1938년 국무원 직할 대학으로 열었다가 1945년 8월 일본이 패하고 만주국이 멸망하자 폐교되었다고 한다. 건국대학에는 일본인, 중국인, 만주인, 조선

인, 몽고인, 러시아인 등 다양한 민족들이 다녔다고 하는데, 하급관리 양성을 위한 학과교육 이외에도 하급장교 정도의 전투지휘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군사훈련과 무도훈련이 엄격하게 실시되었다고 한다. 이미 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던 젊은이들이 여기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생활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대신 대학이라는 제도와 권력의 유착에 대하여 다시금 고민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이날 우리는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는 식당에서 회귀를 먹었다. 흥이 나면 어디서든 웃음을 벗어젖히는 대륙 사람의 호방함에 감탄하면서 땀을 흘리며 회귀를 먹고, 김창호 선생님이 사주신 과일까지 들고 호텔에 돌아가 먹으니 과연 천국이 따로 없을 지경이었다.

## 5. 모던의 꽃, 하얼빈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하얼빈으로 향했다. 금과 청 왕조의 발원지였던 하얼빈은 만주어로 명성, 명예를 뜻하는 “아러진(阿勒錦)”에서 파생된 이름이라는 설도 있고, 만주어로 “그물을 말리는 곳”이라는 뜻이라고도 한다. 하얼빈은 1898년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블라디보스톡까지 연장하는 동청철도를 건설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외국인들이 하얼빈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한 것을 계기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양인들도 많이 모여 16개국 영사관이 개설되고 수백 개의 공장, 기업, 은행을 거느린 만주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다고 한다. 1918년에는 러시아 내전에서 패한 러시아 백군이 이 도시로 피난 오면서 러시아 국경 바깥에서 가장 큰 러시아인 사회가 형성되고, 러시아식 학교가 설립되고 러시아어 신문이 발행되기도 했다. 현재 중국에서 10번째로 큰 도시인 하얼빈은 겨울이 매우 길고 혹독하지만 또한 겨울의 축제인 빙등축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이번 답사는

다행히 여름이라서 혹독한 추위 대신 쾌적한 날씨만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사실 이번 답사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도시가 바로 이효석이 커피를 마셨다던 이 하얼빈이다. 하얼빈이라 하면 근대 동북아시아 문화의 꽃이라고 할 만큼 우리 근대 문학 작품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터라 ‘동방의 파리’, ‘동방의 모스크바’라는 별명에 걸맞은 모더니즘의 집성체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향했던 곳은 바로 문묘였다.



[사진 11] 대성전 전경

1926년 건립된 하얼빈 문묘는 동북 지구에서 가장 큰 공자 사당이라고 하며,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었다. 이 사당은 청나라 건축 양식의 영향으로 남북향으로 가로놓인 전원(前院), 중원(中院), 후원(後院)의 삼진(三進) 정원을 갖추고 있다. 문묘의 중심인 중원에 있는 대성전은 공자의 고향인 곡부의 문묘에 있는 9칸 대성전보다도 큰 11칸 규모를 자랑한다. 같은 고건축물인데도 선양고궁에서 느껴지는 쇠락한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붉은 담장을 두른 건물들은 널찍하고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전원에서 마침 전통 복식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는 것처럼

보여서 한참 구경할 수 있었다. 중국어를 모르니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웬지 연애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자의 신성한 사당에서 연애물이라니 호통을 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른다. 사당 내에는 오랜 세월 자란 것이 분명한 소나무와 잣나무가 흩어져 있었다.

하얼빈 문묘는 웬만한 궁전보다도 웅장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손질 되어 있었는데, 그 중심인 대성전은 지붕의 황색 기와들마저도 반들반들하게 빛나 보였다. 공자를 향한 태도가 황제에 대한 태도보다도 조심스럽고 정성 어린 것처럼 느껴졌다. 이때쯤 되니 청색 현판과 붉은 벽, 노란 지붕이 어우러진 독특한 건축 양식이 눈에 익기 시작해서 더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대성전 안의 제단에는 산 제물 대신 동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목각 인형이 놓여 있었다. 전원에 놓인 커다란 공자의 상 앞에서 나도 학문 성취의 염원을 담아 분향하였는데, 과연 영험이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보아야 알 것 같다.



[사진 12] 안중근의사기념관 입구

현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우리가 다시 향한 곳은 안중근의사기념관이었다. 주택가 한 칸에 있어 조용하고 널찍했던 문묘와 달리 안중근의사기념관은 혼잡한 하얼빈역 대로 바로 옆에 있었다. 문묘에서 느꼈던 차분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역동적인 인파가 압도적인 인상을 주는 곳이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하얼빈역 바로 옆에 위치한 기념관에는 안중근 의사가 11일간 하얼빈에 머물며 거사를 기획하고 달성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고, 동상과 유필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크기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곳이었으나 그 위치가 워낙 시사적인 터라 실감되는 바가 컸다. 안중근의사기념관 앞을 오가는 수많은 인파는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곳에서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까? 이곳은 하얼빈시와 철도국이 공동으로 건립비용을 부담하여 개관했다고 하니, 항일(抗日)의 기치 아래 연대했던 근대 동아시아의 정치적 숙명을 느낄 수 있었던 장소이기도 했다.



[사진 13] 성소피아성당 전경

이다음에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성소피아 성당이였다. 이곳은 고풍스러운 문묘나 혼잡한 하얼빈역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1907년에 건립된 이 러시아정교의 교회당 건물은 높이가 53m에 이르는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다. 1903년 중동철로가 개통되면서 제정 러시아의 보병사단이 하얼빈에 입성하자, 러시아 정부는 군인들을 위한 예배당으로 이 교회당을 건축했다고 한다. 지금의 교회당은 1923년 9

월에 시작한 재건축을 9년간 지속하여 완성된 건물로, 적벽돌로 쌓은 몸체와 푸른 지붕, 금색 십자가로 이루어진 건물이 가을하늘처럼 짙하게 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마치 영화처럼 교회당 종이 치고 비둘기 떼가 양파 모양의 지붕을 휘감고 나는 것이 하얼빈의 다른 풍광과 대비되어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교회당 내부에는 예전 하얼빈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그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다.



[사진 14] 성소피아 성당 내부에 전시된 당시 하얼빈 거리 사진

성소피아 성당을 나와 우리는 중앙대가를 따라 걸어갔다. 중앙대가도 러시아가 동청철도를 건설하며 만든 도로로 1900년에 완공되었다고 하는데, 도로 양옆에는 70여 채의 건축물이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져 있어 정말 유럽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이번 답사에서 거쳐 온 다롄을 전쟁의 도시로, 선양을 고궁의 도시로, 창춘을 식민지의 도시라 한다면 하

얼빈은 그야말로 문화의 도시라고 말할 만 했다. 이곳을 채운 공기는 다른 도시들과는 확연하게 달라 괜히 마음을 술렁이게 했다. 근대 조선의 문인들에게도 하얼빈은 이처럼 마음을 흔드는 도시였으리라.

너른 대로를 따라 햇빛을 받으며 걸어가 당도한 곳은 자오린공원이다. 자오린공원은 원래 하얼빈에 건립된 최초의 공원으로 하얼빈공원이라 하였는데, 중국의 항일영웅인 리자오린(李兆麟) 장군의 유해를 안장한 것을 계기로 1946년부터 자오린공원이라 개명했다고 한다. 특히 이곳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직전에 거닐었던 곳으로, “내가 죽거든 시신을 하얼빈공원에 묻었다가 조국이 독립되거든 고국으로 옮겨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일설도 있다. 노란 기둥 사이의 문을 지나자 나오는 푸른 공원 안에는 나들이 나온 인파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사진 15] 키타이스카야 거리 전경

이 공원을 지나 우리가 당도한 곳이 바로 키타이스카야 거리였다. 이효석이 사랑한다고 썼던 바로 그 키타이스카야 거리, 지금도 그가 목었던 ‘모데른’ 호텔이 영업 중인 곳이다. 키타이스카야 거리는 가장 보고 싶었던 곳이 기 때문에 감명이 깊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방금 지나친 중앙대가와와는 또 다른 이국적 분위기가 있어서 놀라웠다. 문묘와 성소피아 성당, 중앙대가, 키타이스카야 거리는 하얼빈이라는 도시 안에 넘쳐났던 각 문화들이 저마다 터져 나와 꽃을 피운 것처럼 이질적이면서도 서로 어울리며 공존함을 보여주었다.

둘을 깔아 포장한 거리는 금방이라도 옛날처럼 마차가 따각따각 지나갈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분명 키타이스카야 거리도 러시아인들이 조성한 것이지만, 이곳은 성소피아 성당이 보여주는 경건하고 정돈된 분위기와는 달리 자유분방하고 쾌활한 분위기로 넘쳤다. 푸르게 늘어선 가로수 너머 거리 양옆으로 뻗은 건물들은 근대의 양식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었다.



[사진 16] 모던호텔 입구

이 거리의 중간에 있는 모던호텔은 하얼빈에 정착한 유대인 사업가가 세운 건물이라고 하는데, 백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호텔로 지금도 근대의 경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영업 중이었다. 호텔의 로비에 들어서자 안쪽 공간에 카페가 차려져 있었고, 카페 옆쪽 벽면에는 당시 호텔을 방문한 사람들을 찍은 사진이 죽 걸려 있었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마신 그 커피는 이호석이 마셨던 것과 같은 맛이였을까? 하얼빈에 다시 갈 기회가 있다면 이번에는 모던호텔에 묵을 것이다.

키타이스카야 거리 이곳저곳을 거닐며 책도 구경하고 사람도 구경하고 있노라니 거리에는 어둠이 내리고 불들이 환하게 켜지기 시작했다. 밤에 조명을 밝히고 보니 거리는 더욱 이국적으로 보였다. 만주답사의 마지막 밤이 오려고 하고 있었다.

## 6. 만주 식민화의 현장, 다시 다렌으로



[사진 17] 낮에 본 하얼빈역 전경

이번 만주답사에서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트라 꼽고 싶은 대목은 바로 이 마지막 밤, 야간열차를 탄 것이 아닌가 싶다. 답사의 마지막 밤에는 하얼빈에서 다롄으로 돌아가기 위해 야간열차에 탔다. 4인실 2층 침대에서 숙면을 취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준비가 지체되어 내리려고 보니 어느새 열차의 문이 잠겨 있었다.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며 역무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도 해봤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도대체 어떤 사정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대로 북경이라도 가는 건가, 돈도 없는데 어찌지, 하고 오만 생각이 교차하는 순간에 다행히도 열차의 문이 열렸다. 이번 답사에서 가장 떨렸던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전화위복이라 했던가. 야간열차를 타고 하룻밤 만에 꼬질꼬질해진 막내들이 너무 안 돼 보였는지 선생님들이 결단(!)을 내리셔서 우리는 상그릴라 호텔에 조식을 먹으러 갈 수 있었다. 일천한 호텔 조식 경험 속에서도 이 상그릴라 호텔의 조식은 단연 탑이라 할 만 했다.



[사진 18] 상그릴라 호텔에서 조식을 먹은 후 기쁨에 차서

몇 번이고 접시를 비우고 커피와 주스를 마셔대면서 기력을 회복한 우리는 흐뭇하게 기념사진을 찍고 마지막 날의 일정을 기운차게 시작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다렌만철본사였다.



[사진 19] 구 만철 본사 앞에서

제국 일본의 만주 침략 역사를 살펴볼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남만주철도주식회사다. 1906년에 건립되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만주에 존재했던 반관반민의 회사로, 그 역할은 창춘-취순을 잇는 남만철도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흔히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저우리 부근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의 노선을 만주횡단철도(동청철도)라고 부르는데, 그 중간 지점인 하얼빈에서 취순까지의 구간은 만주횡단철도의 남부지선이며 이 지선의 일부가 바로 남만철도가 된다. 설립 당시에는 동경에 본사가 있었다고 하나 곧 다렌, 신경으로 이전하여 동경에는 지

사를 두었다고 한다. 만철은 철도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광업, 제조업, 호텔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복합기업으로 성장하여 만주 식민화의 핵심 기관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은 뚜렷한 표지 없이 사용되는 사무용 건물로 보였다. 만일 선생님들과 함께 오지 않았다면 그저 낡은 건물이라 보고 무심하게 지나쳤을 것이 분명하다. 카메라 앵글에 제대로 다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크고 긴 이 건물은 지금도 선양철도국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내부를 자세히 둘러보지는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진 20] 중산의원

이다음에 방문한 곳이 다롄대학 부속 중산의원이다. 의과대학으로 사용되는 이곳 역시 식민지 시대에 건립된 대학으로, 적벽돌과 담쟁이 넝쿨이 어우러진 서양식 건물이 쉽게 ‘제국대학’을 상기시키는 외양을 하고 있었다. 창춘에서 보았던 건국대학처럼, 대학은 국가 권력이 가시화되는 장소이자

식민화를 수행한 핵심 기관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남산일본거리에 흩어져 있는 일본식 주택들을 둘러본 후, 우리는 러시아 풍경구로 향했다. 다렌은 청일전쟁 후 러시아가 조차(租借) 받아 건설한 항만 도시로, 러일전쟁 후에는 일본이 50여 년 동안 조차하여 자유항으로 삼고 남만주철도회사 본사를 두는 등 만주 식민화의 거점으로 활용한 도시이다.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간 답사 첫째 날에 보았던 다렌이 치열한 전쟁과 죽음의 흔적을 지울 수 없는 장소로 다가왔다면, 오늘 본 다렌은 근대에 이 땅을 점거하고 흘러갔던 ‘제국들’이 아직도 생생히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느껴졌다. 옛 ‘제국’의 숨결이 가장 풍부하게 드러난 곳 중 하나가 바로 다렌 항에서 이어지는 이 러시아풍경구가 아니었나 싶다.



[사진 21] 러시아풍경구 초입 미술관 건물



[사진 22] 구 동청철도 다렌사무소 전경

이곳은 다렌 건설 당시 도시 건축을 책임졌던 사하로프가 건설한 거리로, 백여 년 전 지어졌던 당시의 건물들이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 거리의 초입에는 현재는 미술관으로 사용되는 뽀족 지붕의 적벽돌 석조 건물이 서 있다. 흰 화강암과 적벽돌을 섞어 쌓은 벽면과 검은 지붕의 이 건물에서는 금방이라도 러시아 군인들이 나올 법한 이국적인 풍정이 있었다. 미술관을 필두로 하여 양옆으로 고색창연한 건물들을 거느리고 쪽 뺨은 길의 끝 쪽에는 물이 다 말라버린 낮은 분수 뒤로 거대한 규모의 흰 석조 건물이 앉아 있었다. 지붕의 녹색이 원래 색깔인지 아니면 세월에 닳아 풍화된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손질이 안 된 상태였지만, 군데군데 거무스름하게 변색된 외양에도 불구하고 규모만큼은 웅장하였다. 이 건물은 애초에 동청철도 다렌사무소로 건설되었다가 다렌시청사, 요동수비군사령부, 관동성 민정서, 관동도독부민생부, 만철 본사, 다렌 야마토호텔 분관, 다렌의원, 만

주자원관, 다렌자연박물관 등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한 자리에서 백여 년에 걸친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다 이제는 방치된 이 건물은 폐허가 자아내는 독특한 쓸쓸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수많은 ‘제국’들이 섰다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몰려나가는 것을 신처럼 지켜보았을 이 건물에게는 4박 5일 동안 꿈결처럼 지나간 우리의 역사도 잠시 스쳐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했을 것이다.